

전주자연생태관, ‘탄소중립건축물’ 탈바꿈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 확대

탄소중립모델 구축사업·유아기후환경교육관 조성사업 마무리… 개관식 갖고 시범 운영

전주지역의 다양한 자연환경을 경험하고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직간접 체험할 수 있는 전주자연생태관이 탄소중립건축물로 탈바꿈해 재개관한다. 전주시는 전주자연생태관에서 추진된 ‘탄소중립모델 구축사업’과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조성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개관식을 갖고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주자연생태관은 2021년 환경부의 ‘공공부문 탄소중립모델 발굴사업’에 선정돼 국비 80억 원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아 공공부문 건축물의 탄소중립모델을 실현시켰으며, 본인증이 연내 마무리 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로 변모하기 위해 △단열체 보강 및 고성능 창호 교체 △고효율 조명 및 가전제품으로 교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비 설치 및 지열에너지 설비 교체 등을 시행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대표적인 모델로 탈바꿈시켰다.

전국 최초로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설치 및 운영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



전주지역의 다양한 자연환경을 경험하고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직간접 체험할 수 있는 전주자연생태관이 탄소중립건축물로 탈바꿈해 재개관한다.

비 4억 원을 지원받아 전주자연생태관 2층 일부에 297.5㎡정도 규모로 기후 대응 인재 육성을 위한 유아기 맞춤형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을 조성하기도 했다.

내부 공간의 전시·체험물을 전면 개편해 1층은 △전주천의 다양한 생물을 소개하는 코너 △전주 대표 생물인 쉬리와 반딧불이 체험 공간으로 연출

했다. 2층은 △자연 속 캠핑 체험 △낚시 체험 코너 △숲속 친구들을 직접 그려보는 라이브스케치 등으로 꾸며 총 30여 가지의 생동감 넘치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채웠다.

시는 안정적인 운영체제 정착 및 다양한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올해까지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재개관을 기념해 당분

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에게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다.

전주자연생태관은 기존과 동일하게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민들에게 개방하며,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요 프로그램 일정 등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새롭게 만나는 전주자연생태관이 복합적인 생태문화체험공간으로써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들에게 생태놀이와 교육·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유아 교사에게 환경교육 및 프로그램 보급까지 지원하면서 전북거점의 종합환경교육의 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은 “기후위기 시대 전주자연생태관이 에너지 절감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전주자연생태관이 앞으로도 단순 관람만이 아닌 생태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이를 통해 친환경 생태도시 구축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완산구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중인 평화동1가 1지구에 대하여 지난 달 측량을 완료하고 14~15일 양일간 사전경계 협의를 위해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전주시 완산구,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 운영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배희곤)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중인 평화동1가 1지구(591필지 144천㎡)에 대하여 지난달 측량을 완료하고 14~15일 양일간 사전경계 협의를 위해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지난 14일에는 화천경로당을 중심으로 인근 토지소유자들과 현장에서 만나 설명 및 경계조정을 위한 자리를 가졌으며, 양일간 진행되는 이 현장사무소를 통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일반적인 진행사항, 사업지구내 경계 설정 방법, 면적증감 안내 등을 안내했다.

현장사무소 운영은 전주시 완산구 지적재조사 담당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추진단이 함께해

구청 방문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토지이용 가치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청은 이번 사전경계협의가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배희곤 완산구청장은 “앞으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들을 위한 적극 행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귀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 조촌동 지사협, 사랑의 주거환경 개선 펼쳐

전주시 덕진구 조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유홍식)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등 주거가 취약한 3가정을 방문하여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 상반기 3가정 도배 장판, 지붕수리 등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집수리 봉사이며,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던 주거취약 가구에 대하여 방한용 가림막 설치, 방충망 교체, 노후되어 파손된 가림막 교체 등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장애인 아들과 함께 사는 윤 모(81) 할머니는 “세탁실로 사용하고 있는 가림막 공간이 노후되고 파손되어 비가 새고 불편했는데 깨끗하게 새로 설치해주니 너무 좋다”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조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홍식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좀 더 안전하고 쾌



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어 보람되고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지역의 든든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매년 생활이 어려운 주거취약 가구를 선발하여 집수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감장김치 지원사업, 생필품 지원 등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가 내년에도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고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힘쓰기로 했다.

전주시는 내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올해보다 2404명이 증가한 1만6495명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시는 19개 수행기관과 35개 동 주민센터를 통해 1만4091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했다. 내년에는 전반적인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도 올해보다 121억 원의 예산을 늘려 759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는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9월 일자리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도 일자리를 예측했다. 최근 수행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해 내년도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신규사업 공유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전주함께라면 도우미’, ‘ESG 자원순환단’, ‘폐의약품 환경지킴이’, ‘시니어치안지킴이’, ‘도시락·반찬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제416회 2차 정례회

12월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사 등 진행

전주시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회기에 들어간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는 15일 제416회 제2차 정례회 개최를 알리는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18일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올해 집행부 행정에 대한 각종 사안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는 18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진다. 올해 감사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각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민선8기 3년차의 전주시장 공약 이행과 사업추진의 실효성, 각종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예산 문제, 전주시설공단 운영 상황,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성화 대책, 전주시민축구단 운영, 출연기관 통폐합 및 운영 상황 등 다양한 주제가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는 각 위원회 차원의 안전 심사와 현장활동 등이 이어진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의안은 조례안 21건, 동의안 5건, 예산안 2건, 계획안 22건, 변경안 1건, 의견청취안 5건 등 모두 56건이다.

내달 4일부터 6일까지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이 이어진다. 또 같은 달 9일부터 1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올해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가 이뤄진다.

예결특위는 위원장에 송영진 의원과 부위원장에 이보순 의원을 중심으로 김현덕, 김동현, 이남숙, 김성규, 김세혁, 김정명, 윤해정, 이국, 이성국, 장병익, 최명권, 최서연 의원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송영진 예결위원장은 “지방교부세 축소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예산 등을 심도있게 분석해 시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의회의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이번 회기에서 이뤄지게 된다”며 “그동안 각종 감사 자료와 예산안 등을 면밀하게 살핀 만큼, 집행부를 상대로 한 발전적인 감사와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축!전주매일 창간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삼례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강신학

- 농 협 전주시지부 지부장 하양진 ■ 농 협 완주군지부 지부장 김대호 ■ 북전주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우광 ■ 전주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임인규
- 고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손병철 ■ 구이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최만열 ■ 봉동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운희 ■ 상관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재욱
- 소양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유해광 ■ 용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종진 ■ 운주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정성권 ■ 이서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송영욱
- 화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중채 ■ 전주원예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양승업 ■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창수